

# 한러, 남북러 경제협력 기대하는 러시아 로펌 ALRUD

김정덕 | 승인 2018.08.08 08:52

"합작 진출 때 러시아 파트너 체크 중요"



◇러시아 로펌 ALRUD의 막심 알렉세예프 대표변호사가 최근의 러시아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등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한러 협력,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을 찾은 러시아 로펌 알루드(ALRUD)의 막심 알렉세예프(Maxim Alekseyev) 대표변호사는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그동안 한국기업과 러시아기업, 연구소 등과의 MOU가 많이 체결되었는데, 많은 사업에서 MOU를 넘어 투자계약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알루드에서도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이러한 수요 확대를 겨냥해 아시아·태평양 데스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년 설립

# ALRUD

◇러시아 로펌 알루드

알루드는 한국 관련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러시아 로펌 중 하나로, 구 소련의 글라스노스트(개방) 이후인 1991년 설립되어 올해로 2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막심 대표는 "알루드는 러시아 투자 등 크로스보더 거래는 물론 러시아 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종합로펌"이라고 소개했다.

전체 변호사는 약 100명. 구체적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과 투자, 공정거래 및 반독점 규제, 은행·금융, 지식재산, 상거래, 데이터 보호, 노동, 부동산, 조세, 분쟁해결 등의 분야에서 많은 자문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동방경제포럼과 한러 정부간위원회 등 여러 경제협력체에 러시아 측 비즈니스 패널로 참여하는 러시아 단골 로펌이 알루드로, 막심이 지휘하는 아태 데스크는 한국 이외에 일본, 중국 지역 등까지 폭넓게 커버하고 있다.

막심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때도 참여했다"며 "한국 주요 로펌의 대표변호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알루드에 따르면, 한국 컨소시엄을 대리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가 출자한 북러 합작회사인 'RasonKonTrans'에 러시아 철도공사(RZD)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자산 확인 등에 대한 자문, 한국 투자자를 대리한 러시아 항만에 대한 법률실사, 한국 전자회사를 대리한 마케팅 및 유통 관련 러시아 반독점 규제 준수 여부 컴플라이언스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을 돕고 있다.

## 게임회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수행

또 한국 게임회사를 대리해 웹사이트 이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의 러시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와 한국 자동차회사의 CIS(독립국가연합) 판매망 컴플라이언스 자문, 한국 정유회사의 러시아 신규 사업 세무전략 자문 등도 알루드가 수행한 주요 한국 관련 업무사례로 소개되며, 알루드는 한국 종합상사의 러시아 파트너에 대한 채권추심 소송, 한국 해운회사를 대리한 외국 중재판정의 러시아 승인 및 집행 등 소송과 강제집행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막심 대표는 "계약을 맺을 때 러시아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많아질 정도로 최근 10년간 러시아 법제가 한층 정비되고 발전되어 왔다"며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연 대부분의 국제로펌에서 관련 팀을 꾸려 서비스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러 협력과 북한의 경제개방 움직임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대(對) 러시아 제재가 가동되고 있는 지금이 한국기업들에게 러시아에 진출 할 좋은 기회라는 게 그의 의견. 막심은 러시아 시장은 한국과 달리 포화상태가 아니라며, "그래서 그런지 대기업에 이어 한국의 중견기업으로 러시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알루드는 삼성, 현대, 롯데, LG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자문했거나 자문하고 있다.



◇러시아 로펌 ALRUD의 막심 알렉세예프 대표변호사

## 한국계 러시아 변호사도 포진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알루드는 한국과 러시아 간 크로스보더 사건의 수행을 위해 한국 주요 로펌들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막심 대표 등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클라이언트는 물론 한국 로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한국과 러시아가 관련된 한러 국제사건의 효과적인 솔루션 도출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막심과의 인터뷰에 배석한 한국계 이승진 러시아 변호사의 설명. 이 변호사는 15살 때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옮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MGIMO)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7년부터 알루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KOTRA의 모스크바 무역관 법률자문역도 맡고 있다.

러시아 투자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없을까. 막심은 한국기업 등이 많이 활용하는 조인트벤처 등에서의 파트너 실사를 강조했다.

"한국기업 등이 러시아에 투자하면서 러시아내 사업 파트너를 정해 합작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트너를 잘못 만나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루드에선 러시아 파트너가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체크하는 클라이언트 체크 서비스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 러, 물류사업 유치 관심 많아

막심은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양하게 사업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독립국가연합 등을 겨냥한 물류기지도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투자대상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러시아 당국에선 또 극동지역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물류 관련 사업 유치에 관심 많다고 귀띔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